

#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이 세 가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을 중심으로\*

조선주\*\*·안주희\*\*\*

## 초 록

본 논문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차별 경험이 세 가지 만족도(생활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에 가지는 영향을 '2015년, 2018년 전국다문화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여성 결혼이민자의 삶의 차별에 대한 학문적 관심 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출신 배경을 가진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차별 경험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차별 경험이 있는 중국계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국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아시아국이라 할지라도 베트남계, 필리핀계 여성 결혼이민자는 다른 차별 경험을 지니며, 이들이 지각하는 차별 경험은 한국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언어차별 등으로 인해 자신이 살아왔던 문화적 특성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향이 과잉보호나 통제적 양육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 순소득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만족도와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겪는 사회적 차별 경험이 사회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함은 물론 출신 배경에 따른 문화적 적응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여성 결혼이민자, 사회적 차별 경험, 한국생활 만족도, 부부관계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 2015년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자료

\* 본 논문의 실증모형은 조선주·오현경·민현주(2017)의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이 한국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용한 모형을 변형·발전시킨 것입니다.

\*\* 제1저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sjcho@kwdimail.re.kr)

\*\*\* 제2저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jungle44@kwdimail.re.kr)

## I. 서론

국가 간 인구이동을 뜻하는 이민<sup>1)</sup>은 오늘날 보다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이민은 유입국과 유출국 모두에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민정책은 항상 논쟁이며 특히 유입국에서는 더 그러하다(이규용 외, 2015). OECD국가들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에서 이민자의 유입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인구변동은 한국에서 이민자에 대한 중요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1960년대부터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주의 여성화가 진행되었으며, 한국이 이주 여성의 주요 목적지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 아시아 지역 전반적으로 재생산노동과 국제결혼을 중심으로 한 여성 이주 규모가 급증하면서부터이다(김이선 외, 2019; Malhotra et al., 2016). 이러한 결혼이민자는 체류외국인<sup>2)</sup> 중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을 가진 자<sup>3)</sup>로 2018년 기준 159,206명에 이르고 있다. 2014년 4월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 사증발급심사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최근 3년간 평균증가율은 1.6%였으나, 2018년에는 전년 대비 2% 증가하였다(통계청, 2018b).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는 흔히 한국계 중국인 또는 ‘동포’ 여성과 동일시 되는 재외동포, 방문취업, 영주 자격 소지 여성들과 국제적으로 한국사회의 이주 여성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인정되어 오고 있다(김이선 외, 2019; Yamanaka and Piper, 2005). 2018년 기준 여성 결혼이민자는 132,391명으로 전체의

1) ‘이민’이라는 표현과 ‘이주’라는 표현은 개념 차이가 있으나 동의어로 활용되기도 한다. 국립국어원(2016.3)은 ‘이민’은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일’. 또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의 명사이고, ‘이주’는 ‘본래 살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거처를 옮김’, ‘개인이나 종족, 민족 따위의 집단이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정착함.’이라는 뜻의 명사로 설명하고 있다. 스티븐 카슬의 저서를 번역한 한국이민학회는 ‘이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이규용 외, 2015).

2) 김이선 외(2019)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결혼이민자, 귀화자를 제외한 15세 이상 외국인 여성의 국적은 1순위인 51.3%가 한국계중국인, 그 다음으로 중국 13.9%, 베트남이 8.8% 순으로 나타났다.

3) 2009년 이전 : F-2-1 및 F-1-3(국민의 배우자), 2010년 이후 : F-2-1 및 F-5-2(국민의 배우자), F-6(결혼이민, F-6-1, F-6-2, F-6-3, 2011.12.15.신설)(통계청, 2019b, 용어해설)

4) 실증분석의 여성결혼이민자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대상자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의미한다(최윤정 외, 2019).

83.2%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은 26,815명으로 16.8%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36.9%, 베트남 26.7%, 일본 8.6%, 필리핀 7.4%순이다. 이를 여성 결혼이민자<sup>5)</sup>만 살펴보면 중국 34.7%, 베트남 30.4%, 일본 9.4%, 필리핀 8.6%로 그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출신 국적<sup>6)</sup>은 73.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66% (조선주 외, 2017b)보다 증가한 숫자이다.

〈표 1〉 결혼이민자 현황

(단위: 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141,654	144,681	148,498	150,865	150,994	151,608	152,374	155,457	159,206
성별	남자	18,561	19,650	20,958	22,039	22,801	23,272	23,856	25,230	26,815
	여자	123,093	125,031	127,540	128,826	128,193	128,336	128,518	130,227	132,391
국적	중국	66,687	64,173	63,035	62,400	60,663	58,788	56,930	57,644	58,706
	베트남	35,355	37,516	39,352	39,854	39,725	40,847	41,803	42,205	42,460
	일본	10,451	11,162	11,746	12,220	12,603	12,861	13,110	13,400	13,738
	필리핀	7,476	8,367	9,611	10,383	11,052	11,367	11,606	11,783	11,836
	기타	21,685	23,463	24,754	26,008	26,951	27,745	28,925	30,425	32,466

자료 : 통계청(2019a),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19.7.19.입력자료)

이처럼 여성 결혼이민자는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김연수, 2013). 여성 결혼이민자의 증가는 사회적 관심 뿐 아니라 학문적 영역에서도 여성 결혼이민자를 주제로 한 실증적 연구들이(김순규·이주재, 2010; 조민경·김렬, 2010; 장덕희·이경은, 2011; 최혜지 외, 2012 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도 다문화 정책의 주요 대상을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07년 37개 정도였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도 2017년 기준 217개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확대하였다(이미영, 2017).

하지만 결혼이민자들은 불인정, 무시, 문화적 지배와 같은 문화적 부적응 뿐만 아니라 경제적 주변화, 착취 및 박탈과 같은 경제적 부적응으로 인하여 고

5) (각국의 여성 결혼이민자 수/총 여성 결혼이민자)×100

6) 1990년대까지는 종교단체를 통해 입국한 일본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초부터 중국 및 필리핀 국적의 결혼이민자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태국 등 출신 국적이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9a).

통 받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사회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이미영, 2017). 실제로 결혼이민자(서울거주 98명)의 차별 경험 수준은 4점 만점(심한 차별을 받음)에 3.03점으로 방문취업자(120명)의 평점 1.79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동현·전희정, 2019).

결혼이민자 집단에 대한 차별은 향후 사회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잠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조선주 외, 2017a). 외국인노동자 다음으로 한국 내 이민자 집단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결혼이민자<sup>7)</sup>는 자국민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 사회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김정선, 2013; 조선주 외, 2017a).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별에 노출되어 있어(Kim, 2013) 이들에 대한 차별은 향후 한국사회의 계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조선주 외, 2017a). 또한 이들의 자녀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민자들의 취업, 교육 등 사회경제적 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영향을 미쳐 사회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Krieger, 1999; Williams & Mohammed, 2009).

그러나 2020년 현재 해당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배려 없는 차별 조치로 나타나기도 한다. 실제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지만 외국 국적 결혼이민자는 제외되었다(뉴스클레임, 2020.4.4.). 재난 상황 속 지급 대상의 기준을 ‘국적’으로만 나누지는 것은 최근 더욱 불거진 ‘외국 국적 소수자들의 혐오’를 지방정부에서 정당화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이주민 68%가 “한국에 인종차별 존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이 경험하는 차별 행위는 주로 반말, 욕, 조롱 등의 ‘언어 비하’(56.1%)와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질문’(46.9%), ‘불쾌한 시선’(43.1%), ‘일터에서의 차별’(37.4%)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을 문제적 상황으로 판단한 인권위는 인종차별 철폐 법제화를 제안 중이라고 밝혔다(서울신문, 2020.3.19.).

한편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그들이 인지하는 삶의 만족도(생활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다(조선주 외, 2017b). 이는 이민자의 삶의 만족도는 그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정도를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Amit, 2010; Massey and Redston, 2006).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이 많이 있으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다. 아울러 이들의 출신국의 특성에

7) 2018년 현재 체류외국인 2,367,607명(통계청, 2018a) 가운데 결혼이민자(159,206명)(통계청, 2018b)의 비율은 약 6.7%에 달한다.

따라 차별경험이나 느끼는 만족도가 다를 수 있으나 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2018년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가 약 16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 정책이 1990년대 말부터 시행되어 왔지만(김이선 외, 2019) 정부의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정책 수요를 지니고 있으며(김이선 외, 2019; 김규식, 2017), 출신 국가별·연령별 맞춤형 지원정책 등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의 차별경험이 생활 만족도에 가져오는 영향을 ‘2015년 전국다문화실태조사 원자료’와 ‘2018년 전국다문화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차별에 대한 학문적 관심 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특히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출신 배경을 가진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차별 경험과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비교하여 국가 배경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이들의 생활 만족도가 개인적 차원의 영향 요인 뿐 아니라 사회적 경험과 맞닿아 있음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크게 두 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성 결혼이민자의 차별 경험에 관한 연구와 여성 결혼이민자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이다.

먼저 여성 결혼이민자의 차별 경험에 관한 연구들이다. 여기서 사회적 차별은 사회적 배제의 한 형태이다. 사회적 배제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분석의 틀로 사용되어 왔으며, 사회적 차별은 이러한 사회적 배제의 한 형태로 강자가 약자를, 다수자가 소수자를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김희주 외, 2012).

실제로 수용사회에서 이민자의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차별 경험은 그들의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다(김한성·이유신, 2013). 즉,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이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차별의 경험이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Bobo and Fox, 2003; Thomas and Holmes, 1992; Safi, 2010). OECD 또한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의 여덟 번째 영역으로 차별<sup>8)</sup>로 제시하고 있어 차별은 이민자의 삶에서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OECD, 2012).

이민자가 인지하는 차별은 인종, 민족, 문화와 관련하여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차별받았다고 인지하는 것과 이민 자녀 세대가 민족, 문화, 인종과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특성별 차별받았다고 인지하는 것<sup>9)</sup>이라 할 수 있다(OECD, 2012). 이러한 차별은 다음의 두 가지 관점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문화적 관점과 구조적 관점이다(조선주 외, 2017b). 문화적 관점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간의 언어, 생활방식, 관습, 혹은 규범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것이며(조인주·현안나, 2012; 김한성·이유신, 2013; Lee & Kim, 2014), 구조적 관점<sup>10)</sup>은 법적, 사회적 제도, 인종주의 등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이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김정선, 2011; Kim, 2012; Kim, 2013).

특히 한국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는 인종, 종족적 차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약자인 여성이기 때문에 이중적 차별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Kim, 2013). 아울러 결혼이민자들은 외국인노동자보다 더 심한 차별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sup>11)</sup>도 있다(김동현·전희정, 2019).

또한 출신 국가에 따른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차별을 살펴보면 다음의 특성을 지닌다. 1998년 개정된 국제 법은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 남녀는 2년

8) 해당 지표는 이민자의 집단 소속감과·차별인지율인데, 생산가능 인구는 15-64세 이민자 중 최근 5년 이내 인종, 민족, 문화와 관련하여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차별받았다고 인지하는 비율, 15-64세 이민자 중 최근 12개월 이내 민족, 인종, 국적과 관련하여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차별받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이며, 이민자 자녀 세대는 15-34세 이민 자녀 세대 중 최근 5년 이내 민족, 문화, 인종과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특성별 차별받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Hughes Johnson, 2001; 이경수·마강래, 2016).

9) 부모의 차별 경험과 자녀의 차별 경험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실증한 외국의 연구들에 따르면, 그들은 이러한 현상이 이민자 가족 내의 '사회화 과정(socialization)'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때, '사회화'라는 개념은 이민자 부모 세대의 경험한 불평한 대우가 '이민자' 또는 '외국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자녀 세대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설명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10) 구조적 관점을 지닌 연구들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인종, 종족에 따라 한국인의 수용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주로 백인으로 구성된 서구권 출신 이주민에 대해 한국인은 보다 수용적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아시아권 혹은 그 외 비서구권 지역 출신 이주민에 대해서는 배타적 태도를 지닐 수 있음을 뜻하고 있다(Kim, 2014; 하상복, 2012; 조선주 외, 2017b).

11) 서울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98명)의 차별 경험 수준은 4점 만점(심한 차별을 받음)에 3.03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방문취업자(120명)의 평점 1.79점보다 1.7배 높은 것이다. 결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10점 만점) 역시 6.76점으로 방문취업자의 6.93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동현·전희정, 2019).

이상 한국에 거주하여 혼인을 유지한 후 귀화 신청을 통하여 국적을 취득하게 하였다. 그런데 국적 취득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약점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인권적, 심리적 억압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는 문제들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인 중국계 출신 이외의 동남아, 중앙아시아 여러 국적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였다(윤형숙, 2004). 그 결과 필리핀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은 한국 사회에서도 비주류에 속하고 있으므로 이들 남성들과 결혼하는 이주 여성들도 대부분이 저학력으로 인해 문화적 학습 습득의 속도가 느림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기도 하고, 베트남 이주 여성들은 유교사상에 근간을 둔 유사한 문화와 전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정보로 결혼을 하였지만 사회주의 영향과 모계사회 영향으로 한국 남성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여 차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남인숙·장혼성, 2009). 한편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의 경우 필리핀, 일본, 태국순으로 동남아시아 국적의 출신 부모를 둔 자녀들이 차별 경험이 더욱 많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다(이경수·마강래, 2016)

그러나, 그 동안 여성 결혼이민자의 차별경험에 관한 연구는 특정 국가의 특정 사례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별 차별경험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들이 겪는 차별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이경수·마강래, 2016) 이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이다. ‘생활 만족도’는 Neugarten등(1961)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일상을 구성하는 활동의 기쁨, 자신의 생활에 대한 의미와 책임감, 자신의 목적에 대한 성취감, 긍정적 자아상과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낙관적인 태도와 감정을 생활만족도라 정의하였다(Neugarten et al., 1961; 김미라, 2002 재인용). 즉 Neugarten등의 도덕성, 행복, 기쁨, 성공적인 삶, 주관적인 안녕 등의 정신건강상태나 사회적응도를 포함하는 것이 생활만족도라고 하였다. 최성재(1986)는 개인의 삶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아 과거, 현재, 미래의 차원에 있어서 삶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인 평가를 생활만족도라 규정하였다(최성재, 1986; 박은희·조인주, 2012 재인용). 생활만족도는 현재의 자신에 가치를 느끼는 정도, 현재의 일상생활에 대한 즐거움과 만족감, 과거의 살아온 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 미래 생활에 대한 기대 및 만족감 등 자신의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규정하기도 한다(조선주 외, 2017b).

특히 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의미하는 생활 만족도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 또는 경험의 상태를 측정하는데 있어 가장 대표적이고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김정옥·박자영, 2007), 여성 결혼이민자 집단은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개인의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여부와 차이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복지 상태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박순미 외, 2009). 한편으로 개인이 만족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각자가 주어진 요건을 고려하여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김수봉, 2010) 생활 만족도에 대한 경험과 수준은 각각의 특징과 욕구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박순미 외, 2016).

한편 ‘삶의 만족도’는 생활 만족도 대신 ‘삶의 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삶의 질은 행복, 만족, 긍정적 정서 등이 내포된 주관적 안녕감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만족감이라 정의하였다(노유자, 1988; 김보현·안영선, 2008 재인용). 또한 삶의 질은 소득수준, 주거환경, 의료보건 서비스 이용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통하여 조작화 할 수 있는데 반해 주관적인 삶의 질은 개인의 주관적 해석에 의한 삶의 질을 뜻하는데, 개인이 인지하는 삶의 만족도는 이러한 주관적 해석의 일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Valois et al., 2004; 조선주 외, 2017a). 아울러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경제·사회·문화·환경·교육·과학기술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척도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삶의 행복도’, ‘삶의 만족도’ 등도 ‘삶의 질’과 유사한 개념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다(박성현, 2019). 또한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안녕과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삶의 만족도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가족 구성원, 특히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김지영·이형실, 2010; 박서영 외, 2007; 송신영·박성연, 2008). 즉, 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복지 뿐 아니라 가족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삶의 질, 삶의 행복도는 유사한 개념이며,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의 조사항목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의 삶의 대한 만족도인 ‘생활 만족도’를 수준에 집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이민자의 생활 만족도를 분석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와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이다. 특히 이민자의 생활 만족도는 소득, 건강 등 기본적인 욕구 충족뿐 아니라 이민자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출신국에서 경험하였던 삶과 이민 후 사회적 차별과 배제 경험 등을 포함하여 이민자를 둘러싼 특수한 사회적 요인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결혼 여성이민자들은 문화적응, 사회적 지지 등 여러 측면에서 복합



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박은희·조인주, 2012).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있어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이외에 고려해야 할 두 가지 만족도가 있다. 먼저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인데, 이는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는 결혼이민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가족, 친구 관계를 포함해 관계망 전반을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과의 관계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Frone et al., 1992; 김현숙 2010 재인용; 민무숙 외, 2013). 아울러 자녀와의 만족도는 다음의 이유로 중요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결혼 이민 여성에 대한 차별 양상은 이들의 자녀에 대한 차별로 재생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민자의 부모가 자녀에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겪는 차별경험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자녀 세대가 차별을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세대간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Harrell, 2000). 이러한 경향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가 돈독한 동양 유교권 국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Benner and Kim, 2009; 이경수·마강래, 2016 재인용).

상기와 같이 지금까지의 연구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차별과 여성 결혼이민자의 만족도 각각의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별개의 영역으로 논의되었던 여성 결혼이민자의 차별 경험이 한국 생활만족도는 물론 가족 구성원으로서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아시아 국가 출신이라 해도 국가마다 사회·경제·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국적별 분석을 병행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 Ⅲ. 연구의 대상 및 모형의 설정

#### 1. 자료의 특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원자료(raw data)<sup>12)</sup>이다. 전국다문화

12)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2009년 처음 실시되었으며,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

가족실태조사는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및 이민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 데이터이며, 전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데이터이다. 또한 자료의 접근성 및 분석의 신뢰성이 높다.

조사 표본은 2015년의 경우 전국의 다문화가족 17,849가구, 결혼이민자·귀화자 총 17,109명,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총 15,540명, 만9~24세의 결혼이민자 자녀 총 6,079명에 대한 조사 자료이다. 2018년의 경우 전국의 다문화가족 17,550가구, 결혼이민자·귀화자 총 17,073명,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총 15,016명, 만9~24세의 결혼이민자 자녀 총 7,095명에 대한 조사 자료<sup>13)</sup>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2018년 자료를 합쳐서 결혼이민자 총 34,865명의 자료를 추출하고, 여성 결혼이민자 28,936명, 이 중 4개국 출신의 18,524명의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015년 분석 자료는 중국(35.6%), 필리핀(28.6%), 중국(한국계)(20.9%), 베트남(14.9%) 여성결혼이민자 순이며, 2018년 분석 자료는 필리핀, 중국(한국계), 중국, 베트남 순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분석 자료의 특성

(단위: 명, %)

구분		2015년		2018년	
		수	비율	수	비율
전체		9,647	100.0%	8,877	100.0%
출신국가	중국	3,430	35.6%	1,872	21.1%
	중국(한국계)	2,021	20.9%	2,889	32.5%
	베트남	1,439	14.9%	1,163	13.1%
	필리핀	2,757	28.6%	2,953	33.3%

자료: 여성가족부(2016), 여성가족부(2019)

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정해숙 외, 2016). 2015년 조사는 세 번째 조사이며, 통계청을 통해 일반에게 원자료가 공개된 것은 2015년 자료가 처음이다(조선주 외, 2017b).

- 13) 해당 조사의 주요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조사표에는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사회생활 및 지원서비스, 경제활동 상태, 기타 일반사항이 있고, 배우자 조사표에는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조사표와 항목이 유사하다. 만9~24세 자녀는 가정생활, 성장배경과 학교생활, 정서 및 사회생활, 경제활동 등의 항목이 조사되었다. 2018년 조사는 2015년 조사에 비해 조사방법을 개선하였으며, 관련된 조사 문항을 명확히 하거나 추가 문항을 구성하였다. 반면 조사결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문항들은 일부 삭제하였다. 조사대상(본인)을 2015년 15세 이상 결혼이민자·귀화자에서 2018년 18세 이상 결혼이민자·귀화자로 변경하고, 표본설계 시 본인 층화를 추가하였다. 기타 세부내용은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여성가족부, 2019)를 참조하기 바란다.

## 2. 모형의 설정 및 변수의 설명

상기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결혼이민자가 이를 경험하지 않은 결혼이민자에 비해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나타낼 것으로 가정한다. 한국에서의 공식적인 이주 경로 중의 하나인 고용허가제의 경우 이주 비용을 어떠한 형태로든 지불할 수 있는 계층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여 일을 하고, 이러한 이주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일단의 여성들은 물리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 결혼이라는 경로를 통해 자국에서의 가난을 벗어나고자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인간적인 희망을 품고 이주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김민정, 2006) 국가별 분석이 필요하다(조선주 외, 2017b). 따라서 본 연구는 2015년과 2018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조선주 외(2017b)에서의 모델을 원용하였다.

해당 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은 일종의 전이학습이라 할 수 있다. 전이학습은 높은 정확도를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유명한 방법론 중 하나이다(Rawat & Wang, 2017; Canziani et al., 2016). 주로 사전학습 된 모델 (pre-trained model)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학습한 문제와 다른 문제를 풀 때에도, 밑바닥에서부터 모델을 쌓아 올리는 대신에 이미 학습되어있는 패턴들을 활용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2015년 데이터와 2018년 데이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특성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으며,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들만을 선택하여 같은 아시아국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다른 차별경험을 지니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도 영향요인도 다를 수 있음을 도출하는데 그 차별성과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차별경험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 (2) 차별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자는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및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 (3) 4개 국가별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4) 2015년과 2018년의 차별 경험과 만족도(생활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모든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인 STATA ver. 15.을 사용하여 통계적 유의성

을 검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P-value가 0.01, 0.05, 0.1 이하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다음은 변수의 설명이다.

피설명변수는 만족도이다. 이민자의 삶의 만족도<sup>14)</sup>는 그들의 사회응용과 사회통합 정도를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Amit, 2010; Massey and Redston, 2006). 이주자가 인지하는 만족감은 사회에서의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는 사회의 일원으로 동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Richardson, 1967).<sup>15)</sup> 원자료에서 제시되는 만족도는 3가지인데, 한국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와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이다. 해당 조사항목은 2015년, 2018년 계속 조사된 항목이다. 생활만족도는 결혼이민자의 향후 삶의 질에 긍정적, 부정적 요인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여성가족부, 2019),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가족생활만족도로 문화적 차이 및 개방성 정도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부부 교육 프로그램 강화하기 위해 개발된 만족도이다. 결혼 이민은 이민자가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며, 한국의 사회, 문화적 구조와 환경의 영향하에 삶의 기반이 전반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가족관계 만족도 및 생활 만족도는 결혼이민자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라고 간주할 수 있다(이창식, 2010).

먼저 한국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귀하는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한다’는 1점에서부터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는 5점으로 5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료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해당 척도를 역수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귀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한다’는 1점에서부터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는 5점으로 5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자료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해당 척도를 역수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귀하는 자녀와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1점에서부터 ‘전

14)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그들이 인지하는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를 측정할 수 있다(조선주 외, 2017b).

15) 이러한 측면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결혼이민자,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연령,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들, 사회적 지지 혹은 사회연결망과 같은 사회자본 요인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와 같은 사회 경험적 요인들이 있다고 제시하였다(김한성·이유신, 2013).

혀 그렇지 않다’는 5점으로 5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자료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해당 척도를 역수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설명변수는 차별 경험이다. “지난 1년 동안<sup>16)</sup>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었다’는 1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로 구성하였다.

통제변수로서 인구학적 변수, 사회경제적 변수, 이민 관련 변수, 배우자 관련 변수를 사용하였다. 인구학적 변수는 연령, 거주지역이다. 연령은 연속변수로 구성하였으며, 가구의 거주지역이 동부(도시)이면 1의 값인 더미 변수로 구성하였다. 거주 지역은 노동 수요적 측면인 노동 시장환경 관련 요인이기 때문이다(채구묵, 2007; 조선주 외, 2017a).

사회경제적 변수로는 교육 수준(학력), 초혼 여부, 가구소득, 자녀 수, 고용형태(직종, 종사상 지위)이다. 학력은 교육 연수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출신국에서의 학위나 학력은 이민국의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Kanas and van Tubergen, 2009; Zeng and Xie, 2004). 반면, 이민국에서 취득한 학력은 그 국가 노동시장의 수요와 매치가 잘 되거나 이민국이 출신국보다 선진국일 경우는 더욱 이민국에서의 학력이 노동시장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Kanas and van Tubergen, 2009; 조선주 외, 2017a). 초혼인 경우 1의 값인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결혼이민자 개인의 소득은 제외한 순가구소득으로서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의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어 구간의 중간 값으로 바꾸어 구성하였으며, 로그 값을 사용하였다. 자녀 수는 18세 이하의 결혼이민자의 자녀 수로 연속변수이다. 고용형태는 직종 자료와 종사상의 지위로 사용하였다. 관리 및 전문사무직, 서비스직 종사자, 판매직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로 구성하였으며, 각각 해당 직종일 경우 1의 값인 더미 변수로 구성하였다. 종사상의 지위는 상용직인 경우 1이다.

이민관련 변수로는 출신 국가, 체류 기간, 한국어 능력이다. 출신지역은 중국, 중국(한국계),베트남, 필리핀 4개 국가로 구분하였다. 체류기간은 2015년, 2018년에서 각각의 입국연도를 뺀 기간으로 연속변수이다.

한국어능력은 “귀하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별로 ‘1점’의 ‘매우 잘한다’에서부터 ‘5점’의 ‘전혀

16) 2018년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기간을 ‘지난 1년’으로 명확히 제시하였다.

못한다'의 5개 척도로 되어 있는데 자료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해당 척도를 역수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이민국의 언어 능력은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때는 물론이고, 일자리를 찾을 때부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Chiswick and Miller, 2007; Shields and Wheatley-Price, 2002)

배우자관련 변수는 배우자 만남경로, 배우자 종사상 지위, 배우자 초혼 여부이다. 배우자와의 만남경로는 결혼 중개업소를 통해 만났을 경우 1인 더미 변수로 구성하였다. 이민자의 경우 결혼경로에 따라서도 이혼 원인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결혼 경로는 다문화가족 구성 및 해체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박재규, 2011).<sup>17)</sup>여성 결혼이민자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종사상의 지위가 상용직인 경우, 배우자가 초혼인 경우 1의 값인 더미 변수로 구성하였다. 또한 2015년과 2018년을 구분하는 변수로 2018년인 경우는 1이다.

분석변수의 기술통계 값은 <표 3>과 같다.

한국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2015년 3.68점에서 3.73점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3.92점에서 4.21점으로 증가하였으며,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4.56점에서 4.41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2015년 차별 경험은 0.83에서 2018년 0.30으로 63.8%p 감소하였다.

평균연령은 2015년 38.64세에서 37.56세로 약 1세 감소하였으나, 학력은 6.55년에서 11.28년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고학력 필리핀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28.6%에서 33.3%로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가구 순소득은 14.71에서 14.64로 0.47%p 감소하였으며, 종사상의 지위는 상용직인 경우가 0.38에서 0.33으로 13.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여성이민자 중에는 배우자 외도나 폭력과 학대, 그리고 가족갈등으로 이혼한 사람이 많은 반면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친구나 동료의 소개로 결혼한 여성이민자 중에는 성격 차이나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종교기관 소개 및 기타 이유로 결혼한 여성이민자 중에는 남편의 외도 및 정신장애로 이혼한 여성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박재규, 2011).

〈표 3〉 분석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단위	전체			2015년			2018년		
			유효사례	평균	표준 편차	유효사례	평균	표준 편차	유효사례	평균	표준 편차
민족도	차별경험	있다=1	12,544	0.46	0.498	3,799	0.83	0.376	8,755	0.30	0.458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	1: 매우불만족~	18,226	3.70	0.973	9,471	3.68	0.986	8,755	3.73	0.959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5: 매우만족	16,153	4.06	0.953	8,474	3.92	0.973	7,679	4.21	0.906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12,622	4.49	0.703	6,464	4.56	0.688	6,168	4.41	0.712
인구학적 변수	연령	세	18,524	38.64	11.423	9,647	37.55	11.308	8,877	39.83	11.430
	거주지역	동부(도시) = 1	18,524	0.63	0.483	9,647	0.63	0.482	8,877	0.62	0.484
	교육수준	연수	18,524	6.55	6.059	9,647	11.28	2.975	8,877	1.41	4.034
	초혼여부	초혼=1	16,153	0.78	0.414	8,474	0.78	0.413	7,679	0.78	0.415
사회경제적 변수	가구순소득	순가구소득의 로그값	18,524	14.71	0.61	9,647	14.64	0.605	8,877	14.79	0.606
	자녀수	명	13,353	1.58	0.675	6,782	1.54	0.654	6,571	1.61	0.694
	관리직, 전문가, 사무직	해당=1	11,470	0.11	0.314	5,769	0.11	0.310	5,701	0.11	0.318
	서비스 종사자	해당=1	11,470	0.20	0.400	5,769	0.21	0.408	5,701	0.19	0.391
직종	판매종사자	해당=1	11,470	0.09	0.279	5,769	0.08	0.268	5,701	0.09	0.290
	기능원 및 기능종사자	해당=1	11,470	0.23	0.419	5,769	0.23	0.420	5,701	0.23	0.418
	단순노무종사자	해당=1	11,470	0.32	0.466	5,769	0.32	0.468	5,701	0.31	0.464
	중상업 지위	해당=1	11,470	0.38	0.485	5,769	0.33	0.471	5,701	0.43	0.495
이민 관련 변수	중국 출신 국가	해당=1	18,524	0.29	0.452	9,647	0.36	0.479	8,877	0.21	0.408
	베트남	해당=1	18,524	0.27	0.441	9,647	0.21	0.407	8,877	0.33	0.469
	필리핀	해당=1	18,524	0.14	0.347	9,647	0.15	0.356	8,877	0.13	0.337
	체류기간	해당=1	18,524	0.31	0.462	9,647	0.29	0.452	8,877	0.33	0.471
이민 관련 변수	한국어 말하기	연수	18,524	13.99	5.753	9,647	14.23	5.315	8,877	13.73	6.184
	한국어 듣기	1: 아주못함 ~ 5: 매우잘함	18,226	3.86	1.026	9,471	3.78	1.032	8,755	3.95	1.013
	한국어 읽기		18,226	3.96	0.980	9,471	3.89	0.987	8,755	4.04	0.966
	한국어 쓰기		18,226	3.81	1.070	9,471	3.74	1.073	8,755	3.88	1.063
이민 관련 변수	배우자 배우자만남경로	결혼중개 연소=1	15,766	0.27	0.445	8,245	0.28	0.448	7,521	0.26	0.441
	관련 배우자 중상업지위	상업직=1	14,268	0.48	0.500	7,518	0.47	0.499	6,750	0.50	0.500
	변수 배우자 초혼여부	초혼=1	15,766	0.75	0.435	8,245	0.75	0.435	7,521	0.75	0.435
	연도 변수	2018=1	18,524	0.48	0.500						

## IV. 실증분석 결과

본 실증분석은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출신의 차별 경험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차별 경험 이외의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이민 관련, 배우자 관련 변수들이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각 분석별로 회귀계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차별 경험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표 4>) 한국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자가 지각하는 차별경험이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핵심인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결과는 2015년 자료로 분석한 조선주 외(2017b)의 결과와 유사하다. 즉, 2018년에도 같은 결과인 것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학습과정이 개인과 가족, 집단으로 하여금 상당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윤혜미, 2009). 이들이 느끼는 차별과 스트레스는 가족 안에서 한국생활에 적응하면서 통제력 상실, 무력감, 자신감의 상실과 같은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 경험(Paukert et al., 2006), 역할갈등의 경험(Chrispin, 1998),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장벽과 성격유형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Padilla et al., 1985), 익숙하지 못한 행동규범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조선주 외, 2017b).

먼저 연령은 낮을수록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거주지역이 읍면부일수록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한편 건강 만족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지역이 동부(도시)일수록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계속 낮아지는 하향곡선의 형태를 나타낸다(주경희, 2011; 정순돌·이현희, 2012)는 일반적인 연구결과와 반대인 결과인데, 이는 나이든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정신과 성격, 혹은 신체적 문제로 인해 갈등을 유발한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그레이스 리보·바버라 케인, 2019).

사회경제적 변수인 교육 수준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Massey and Redston, 2006)으로 나타났으



나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아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김진희·박옥임, 2008) 이는 학력이 높은 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에 적용될 수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관리직, 전문가, 사무직 종사자가 전반적인 만족도와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현재 빈곤한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경제적 목적으로 결혼이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모든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조선주 외, 2017a). 자녀 수가 많을수록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졌으며,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도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도 일반 한국인 가족과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를 중요한 관심사로 설정하고 있는데, 자녀의 양육과 교육 문제는 주로 여성이 맡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설동훈 외, 2009; 조선주 외, 2017a).

이민관련 변수로 중국(한국계)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베트남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여성이민자의 경우 결혼동기가 자국 가족의 경제 지원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혼동기가 높은 결혼생활적응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출신지역 및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각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에 대한 정의와 관점 다르기 때문이다. 이민자들이 출신국에 따라 행복에 대한 정의와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이민국에서 그들이 인지하는 삶의 만족도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조선주 외, 2017b).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모든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진다는 결과인데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결혼기간이 곧 거주기간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혼기간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거주기간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김한성·이유신, 2013; 조선주 외, 2017b).

한국어 능력은 듣기가 잘 될수록, 쓰기가 잘 될수록 세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국의 언어 구사능력은 결혼이민자

의 삶의 만족도와 전반적인 사회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김진희·박옥임, 2008), 분석결과 이민자의 의사소통효율성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및 자녀와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우자와의 만남 경로가 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경우 세 가지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상용직인 경우 한국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초혼인 경우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량·속성의 한국 결혼 중개시스템은 자율적인 배우자 결정권의 침해하며, 결혼 후에도 언어 소통 문제, 생활전반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가정이 파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각종 정보·자원·취업으로부터도 소외, 상당수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들은 부모의 낮은 경제·사회적 지위, 언어·문화·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가정·학교 교육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법무부 외, 2006; 조선주 외, 2017b). 또한 배우자의 경우도 본인과 마찬가지로 임시직 및 일용직, 간접 고용된 노동자가 생활만족 및 직무만족의 전반적인 항목에 걸쳐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는(배화숙, 2008) 일반적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아울러 2018년 조사한 여성결혼이민자는 전반적인 만족도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전반적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추정치	표준화오차	추정치	표준화오차	추정치	표준화오차
사회적 차별경험			-0.228 ***	0.030	-0.195 ***	0.031	-0.094 ***	0.024
인구 학적 변수	연령		-0.005 *	0.003	-0.003	0.003	-0.007 ***	0.002
	거주지역		0.006	0.027	-0.036	0.028	-0.045 **	0.022
사회 경제 적 변수	교육수준		0.001	0.004	0.004	0.004	0.002	0.003
	초혼여부		-0.021	0.045	-0.102 **	0.047	0.119 ***	0.038
	ln가구순소득		0.330 ***	0.035	0.177 ***	0.036	-0.049 *	0.029
	자녀수		0.023	0.020	0.047 **	0.020	-0.067 ***	0.016
	직종 (ref. 판매직)	관리직, 전문가, 사무직 종사자	0.147 ***	0.041	0.101 **	0.042	0.041	0.033
		서비스 종사자	-0.007	0.036	0.029	0.037	0.025	0.030
	종사상 지위	상용직	-0.051 *	0.028	-0.094 ***	0.029	-0.007	0.023
	이민 관련 변수	국가 더미 (ref. 필리핀)	중국	-0.061	0.041	0.047	0.042	-0.057 *
중국 (한국계)			-0.127 ***	0.048	0.039	0.049	-0.101 ***	0.039
베트남			0.082 *	0.043	0.149 ***	0.044	0.012	0.034
체류기간		-0.018 ***	0.004	-0.025 ***	0.004	-0.007 **	0.003	
한국어_말하기		0.020	0.032	0.009	0.032	-0.063 **	0.026	
한국어_듣기		0.064 **	0.032	0.075 **	0.033	0.099 ***	0.026	
한국어_읽기		0.007	0.028	0.015	0.029	0.045 **	0.023	
한국어_쓰기		0.047 **	0.023	0.044 *	0.024	0.036 *	0.019	
배우자 변수		만남경로	-0.073 **	0.031	-0.142 ***	0.031	-0.044 *	0.025
		종사상지위	0.061 **	0.028	0.108 ***	0.028	0.028	0.022
		초혼여부	-0.009	0.037	0.053	0.038	0.149 ***	0.030
연도더미	2018	0.102 **	0.050	0.374 ***	0.052	-0.129 ***	0.041	
상수			-1.298 **	0.529	1.046 *	0.544	5.133 ***	0.433
Adj R-squared			0.078***		0.103***		0.056***	

주: \* p<0.1, \*\* p<0.05, \*\*\* p<0.01

다음으로 중국계 여성 결혼이민자가 따로 분석한 결과(〈표 5〉) 사회적 차별 경험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국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만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한국계 여성 결혼이민자(〈표 6〉)는 사회적 차별 경험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배우자와의 관계만족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계 여성 결혼이민자와 필리핀계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사회적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자녀와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표 7〉, 〈표 8〉). 특히 베트남, 필리핀계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이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중국, 중국(한국계) 여성결혼이민자와 달리 베트남, 필리핀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살면서도 언어 등의 문제로 인한 차별로 자신이 살아왔던 문화적 특성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향이 과잉보호나 통제적 양육 행동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최형성, 2007)

상기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순소득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만족도와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6〉, 〈표 7〉, 〈표 8〉)

상기 외에 관리직·전문가·사무직 종사자인 경우 중국·중국한국계·베트남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말하기·듣기 능력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계, 중국한국계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듣기가 잘되는 경우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베트남, 필리핀계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한국어 능력이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계, 중국한국계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배우자 관련 변수는 중국, 중국한국계, 필리핀계 여성 결혼이민자는 배우자의 만남경로가 중개업체를 통한 경우가 아닌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배우자가 초혼인 경우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개 국가의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와 달리 베트남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의 종사상의 지위가 상용직인 경우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2018b)에 따르면 국내에 유

입되는 외국인 인구는 크게 일자리를 찾으러 오는 취업이민과 배우자를 찾아 들어오는 결혼이민이 다수인데, 특히 베트남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결혼 중개업자를 통하여 결혼이민을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중국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전반적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추정치	표준화오차	추정치	표준화오차	추정치	표준화오차
사회적 차별경험			-0.237 ***	0.064	-0.233 ***	0.069	-0.056	0.053
인구학적 변수	연령		-0.007	0.006	-0.013 **	0.006	-0.004	0.005
	거주지역		0.063	0.058	-0.057	0.062	-0.044	0.048
사회경제적 변수	교육수준		0.003	0.006	0.006	0.007	0.007	0.005
	초혼여부		-0.148	0.090	-0.150	0.096	0.192 **	0.076
	ln가구순소득		0.377 ***	0.080	0.195 **	0.085	-0.044	0.067
	자녀수		0.018	0.044	0.024	0.047	-0.080 **	0.036
	직종 (ref. 판매직)	관리직, 전문가, 사무직 종사자	0.130 *	0.076	0.044	0.082	0.022	0.062
		서비스 종사자	-0.038	0.072	-0.008	0.077	0.098	0.060
	종사상 지위	상용직	0.026	0.060	0.044	0.064	0.100 **	0.050
이민 관련 변수	체류기간		-0.011	0.007	-0.016 **	0.008	-0.011 *	0.006
	한국어_말하기		0.079	0.069	0.087	0.074	-0.113 **	0.057
	한국어_듣기		0.100	0.070	0.069	0.075	0.111 *	0.057
	한국어_읽기		-0.105	0.066	-0.036	0.070	0.058	0.054
	한국어_쓰기		0.080	0.050	0.022	0.053	0.017	0.042
배우자 변수	만남경로		-0.031	0.071	-0.074	0.076	0.018	0.059
	종사상지위		0.011	0.058	0.042	0.062	-0.030	0.048
	초혼여부		-0.060	0.083	-0.069	0.089	0.151 **	0.070
연도더미	2018		0.157 *	0.093	0.424 ***	0.100	-0.067	0.077
상수			-2.053 *	1.207	1.203	1.294	4.925 ***	1.014
Adj R-squared			0.098***		0.103***		0.049***	

주: \* p<0.1, \*\* p<0.05, \*\*\* p<0.01

〈표 6〉 중국(한국계)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전반적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추정치	표준화오차	추정치	표준화오차	추정치	표준화오차
사회적 차별경험			-0.278 ***	0.066	-0.206 ***	0.066	-0.087	0.054
인구학적 변수	연령		-0.005	0.005	-0.007	0.005	-0.008	0.005
	거주지역		-0.034	0.059	-0.020	0.059	-0.083 *	0.048
사회경제적 변수	교육수준		-0.005	0.007	0.000	0.007	-0.004	0.006
	초혼여부		-0.039	0.087	-0.144 *	0.087	0.046	0.073
	ln가구순소득		0.442 ***	0.077	0.271 ***	0.077	0.025	0.064
	자녀수		0.024	0.043	0.038	0.043	-0.080 **	0.034
	직종 (ref. 판매직)	관리직, 전문가, 사무직 종사자	0.159 **	0.077	0.060	0.077	0.045	0.061
		서비스 종사자	0.118 *	0.068	0.071	0.068	-0.001	0.056
	종사상 지위	상용직	-0.060	0.060	-0.124 **	0.060	-0.111 **	0.049
이민 관련 변수	체류기간		-0.009	0.007	-0.018 ***	0.007	-0.004	0.006
	한국어_말하기		0.181	0.114	0.082	0.114	0.069	0.096
	한국어_듣기		-0.114	0.118	0.070	0.119	0.189 *	0.103
	한국어_읽기		0.117	0.095	-0.024	0.095	-0.029	0.081
	한국어_쓰기		0.011	0.075	0.039	0.075	-0.033	0.061
배우자 변수	만남경로		-0.076	0.097	-0.288 ***	0.097	0.020	0.078
	종사상지위		0.089	0.060	0.100 *	0.060	0.074	0.049
	초혼여부		0.066	0.090	0.104	0.090	0.270 ***	0.076
	연도더미	2018	0.078	0.113	0.201 *	0.113	-0.205 **	0.091
	상수		-3.542 ***	1.196	-0.235	1.197	3.603 ***	0.989
Adj R-squared			0.099***		0.085***		0.063***	

주: \* p&lt;0.1, \*\* p&lt;0.05, \*\*\* p&lt;0.01

〈표 7〉 베트남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전반적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추정치	표준화오차	추정치	표준화오차	추정치	표준화오차
사회적 차별경험			-0.224 ***	0.076	-0.165 **	0.076	-0.155 **	0.063
인구학적 변수	연령		0.007	0.007	0.002	0.007	-0.001	0.006
	거주지역		0.050	0.068	-0.072	0.068	0.073	0.056
사회경제적 변수	교육수준		0.003	0.010	-0.003	0.010	0.002	0.008
	초혼여부		0.206	0.143	-0.129	0.143	0.113	0.119
	ln가구순소득		0.343 ***	0.092	0.173 *	0.091	-0.044	0.076
	자녀수		-0.010	0.044	-0.035	0.044	-0.080 **	0.037
	직종 (ref. 판매직)	관리직, 전문가, 사무직 종사자	0.262 ***	0.087	0.342 ***	0.087	0.091	0.072
		서비스 종사자	0.095	0.116	0.197 *	0.115	0.054	0.095
	종사상 지위	상용직	-0.002	0.070	-0.008	0.069	0.029	0.058
이민 관련 변수	체류기간		-0.040 ***	0.012	-0.029 **	0.012	-0.013	0.010
	한국어_말하기		-0.042	0.069	0.024	0.068	-0.042	0.057
	한국어_듣기		0.068	0.073	0.024	0.072	0.087	0.060
	한국어_읽기		0.043	0.059	0.092	0.059	0.051	0.048
	한국어_쓰기		0.058	0.052	-0.013	0.051	0.045	0.042
배우자 변수	만남경로		-0.035	0.078	-0.041	0.077	-0.049	0.064
	종사상지위		0.167 **	0.071	0.193 ***	0.071	-0.005	0.059
	초혼여부		-0.163 *	0.092	0.077	0.091	0.026	0.076
연도더미	2018		-0.089	0.154	0.115	0.153	-0.223 *	0.126
상수			-1.525	1.399	1.358	1.390	4.999 ***	1.152
Adj R-squared			0.099***		0.086***		0.046***	

주: \* p<0.1 , \*\* p<0.05, \*\*\* p<0.01

〈표 8〉 필리핀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차별경험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전반적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추정치	표준화오차	추정치	표준화오차	추정치	표준화오차
<b>사회적 차별경험</b>			<b>-0.191 ***</b>	<b>0.046</b>	<b>-0.173 ***</b>	<b>0.048</b>	<b>-0.092 **</b>	<b>0.037</b>
인구학적 변수	연령		-0.004	0.005	0.002	0.005	-0.012 ***	0.004
	거주지역		-0.028	0.043	-0.050	0.044	-0.084 **	0.034
사회경제적 변수	교육수준		0.006	0.007	0.007	0.007	0.002	0.006
	초혼여부		0.039	0.086	0.030	0.089	0.095	0.069
	ln가구순소득		0.265 ***	0.053	0.127 **	0.055	-0.091 **	0.042
	자녀수		0.057 *	0.033	0.113 ***	0.034	-0.045 *	0.027
	직종 (ref. 판매직)	관리직, 전문가, 사무직 종사자	0.059	0.103	-0.004	0.107	0.016	0.084
		서비스 종사자	-0.113 *	0.063	-0.044	0.065	-0.015	0.050
	종사상 지위	상용직	-0.090 **	0.045	-0.158 ***	0.046	-0.017	0.036
이민 관련 변수	체류기간		-0.022 ***	0.008	-0.035 ***	0.008	-0.002	0.006
	한국어_말하기		0.012	0.045	-0.044	0.046	-0.063 *	0.036
	한국어_듣기		0.077 *	0.045	0.100 **	0.047	0.079 **	0.036
	한국어_읽기		0.012	0.039	0.012	0.041	0.051	0.032
	한국어_쓰기		0.014	0.035	0.082 **	0.036	0.066 **	0.028
배우자 변수	만남경로		-0.104 **	0.045	-0.218 ***	0.047	-0.091 **	0.036
	종사상지위		0.044	0.044	0.123 ***	0.046	0.056	0.036
	초혼여부		0.040	0.054	0.070	0.055	0.149 ***	0.043
연도더미		2018	0.184 **	0.090	0.512 ***	0.093	-0.060	0.072
상수			-0.369	0.799	1.437 *	0.826	5.789 ***	0.643
Adj R-squared			0.054***		0.113***		0.057***	

주: \* p&lt;0.1, \*\* p&lt;0.05, \*\*\* p&lt;0.01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의의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실증적으로 사회적 차별 경험이 한국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2015년 전국 다문화실태조사 원자료'와 '2018년 전국다문화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다양한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4개국가를 선정하여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집단에 대한 차별은 향후 한국사회의 계층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은 이들의 자녀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2015년 3.68점에서 3.73점으로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3.92점에서 4.21점으로 증가하였으며,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4.56점에서 4.41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2015년 차별경험은 0.83에서 2018년 0.30으로 63.8%p 감소하였다. 고학력 필리핀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28.6%에서 33.3%로 증가한 결과 평균 교육연수가 약 4년 높아졌으며, 가구 순소득과 상용직 비율은 각각 0.47%p, 13.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에서는 사회적 차별경험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국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자가 지각하는 차별 경험이 한국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핵심인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결과는 앞서 분석한 결과와 같이 출신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차별 경험이 있는 중국계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베트남계, 필리핀계 여성 결혼이민자가 지각하는 차별 경험은 한국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언어차별 등으로 인해 자신이 살아왔던 문화적 특성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향이 과잉보호나 통제적 양육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순소득이 높

을수록 전반적인 만족도와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말하기, 듣기 능력은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계, 중국한국계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듣기가 잘되는 경우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베트남, 필리핀계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한국어 능력이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계, 중국(한국계)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자녀의 의사소통이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배우자 관련 변수는 중국, 중국(한국계), 필리핀계 여성 결혼이민자는 배우자의 만남 경로가 중개업체를 통한 경우가 아닌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량·속성의 한국의 결혼 중개시스템은 자율적인 배우자 결정권의 침해이며, 결혼 후에도 언어 소통 문제, 생활 전반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가정이 파탄되는 사례를 발생하게 한다. 또한 각종 정보·자원·취업으로부터도 소외, 상당수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들은 부모의 낮은 경제·사회적 지위, 언어·문화·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가정·학교 교육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법무부 외, 2006). 아울러 배우자가 초혼인 경우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이민자의 차별에 관한 연구들은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으나 특정 국가의 특정 사례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별 차별경험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우리 사회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만을 선택하여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의 초석이 되는 연구로 가장 많은 집단의 현황을 분석하고, 2015, 2018년 사이의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로서의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차별 경험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대상 개개인의 차별 경험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3년이 지난 지금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사회적 차별을 받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국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은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나아가 자녀, 가족, 사회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논의 및 질적 연구 등을 실증적으로 뒷받

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중국(한국계) 여성결혼이민자는 같은 아시아국이라 할지라도 베트남, 필리핀 여성 결혼이민자와 다른 차별 경험을 지니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 결혼이민자가 겪는 사회적 차별 경험이 사회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함은 물론 출신 배경에 따른 문화적 적응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얻게 되었으며, 향후 개개인의 차별 경험 및 대상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 경험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엄밀한 추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규식(2017). 여성 결혼이민자 한국사회 정착화 과정 및 지원정책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동현·전희정(2019). 서울시 거주 외국인의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방문취업자와 결혼이민자 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8(2): 1992-2020.
- 김미라(2002).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탐색.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민정(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상담 및 지원활동을 통해서 본 한국살이의 어려움. 한국인권재단 월례발표자료(2006.8).
- 김보현·안영선(2008). 노인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15(1): 141-160.
- 김수봉(2010). 노인의 생활만족도 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 노인복지연구 (47): 95-111.
- 김순규·이주재(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과 사회적 지지가 한국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1): 05-20.
- 김연수(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영향요인 연구: 서울·경기 및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3(4): 005-038.
- 김이선·최윤정·김수진·오세영·최혜영(2019). 이주여성의 다양성과 정책 재구성 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정선(2013). 귀환이주여성들의 ‘이주 안전망’ 만들기: 네팔의 포우라키(Pourakhi) 액티비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9(4): 191-235.
- 김정선(2011). 시민권 없는 복지정책으로서 ‘한국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제와 사회. 92: 205-246.
- 김정옥·박자영(2007). 도예활동이 노인의 우울정서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95-109.
- 김지영·이형실(2010). 청소년의 가족 및 또래 요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2(1): 21-32.
- 김진희·박옥임(2008). 농촌과 도시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 비교: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8(1): 127-160.
- 김한성·이유신(2013).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한국사회학. 47(2): 177-209.

- 김현숙(2010).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135-159.
- 김희주·권종희·최형숙(2012). 양육미혼모들의 차별경험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6: 121-155.
- 그레이스 리보·바버라 케인(2019). 나이 든 부모와는 왜 사사건건 부딪힐까. 전수경·정미경·한정란(역). 서울:한마당.
- 남인숙·장흔성(2009). 결혼이민여성 가족의 출신국 문화이해. 사회이론. 35: 7-30.
- 노유자(1988). 서울지역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무숙·김이선·주유선·이정연(201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양상을 통해 본 사회통합의 과제. 여성연구. 85(2): 5-43.
- 박서영·박성연·Cheat, C.S.I.(2007).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및 양육행동과 남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28(2): 29-54.
- 박성현(2019). 한국인의 삶의 질, 통계적 지표에 의한 현황과 개선 방향. 학술원논문집(자연과학편). 58(1): 89-109.
- 박순미·손지아(2016). 노인의 소득수준별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비교연구. 보건사회연구. 36(4): 097-124.
- 박순미·손지아·배성우(2009). 노인의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적 접근-인구 사회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3): 1-24.
- 박은희·조인주(2012).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8(2): 29-54.
- 박재규(2011).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가족해체 원인 및 특성 분석 : 경기지역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3): 104-139.
-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인적자원부(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관계부처합동 자료.
- 배화숙(2008). 비정규직 유형별 직무 및 일상생활 만족도 차이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설동훈·서문희·이삼식·김명아(2009).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 송신영·박성연(2008).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및 양육 행동과 아동의 친구 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6(5): 19-33.

- 여성가족부(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 윤형숙(2004).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4년도 한국여성학회 심포지움발표논문. 229-339.
- 윤희미(2009).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임파워먼트 기반의 사회복지실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4): 85-108.
- 이경수·마강래(2016). 이민자 차별 경험의 세대간 대물림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 개발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299-313.
- 이규용·김기선·정기선·최서리·최홍엽(2015). 이민정책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 이미영(2017). 한국사회 내에서의 사회권 발전에 있어서의 다문화주의 -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 대상으로 한 다문화 관련 법안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17(4): 393-422.
- 이창식(2010).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도와개발. 17(4): 717-742.
- 장덕희·이경은(2011).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부부의 문화적응에 미치는 가족요인의 영향. 농촌사회. 21(2): 103-139.
- 정순돌·이현희(2012). 베이비붐세대의 삶의 만족도 : 1998년과 2008년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55: 105-131.
- 정해숙·김이선·이택면·마경희·최윤정·박건표·동제연·황정미·이은아(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민경·김렬(2010). 한국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이주민의 이중문화 정체성과 사회문화적응의 관계. 대한정치학회보. 18(2): 263-289.
- 조선주·민현주(2017a). 여성 결혼이민자의 임금결정요인 분석 :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7(3): 45-75.
- 조선주·오현경·민현주(2017b).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차별경험이 한국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성연구. 94(3): 109-140.
- 조인주·현안나(2012).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영향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분석 문화변용과 적응과정 이론을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1): 177-206.
- 주경희(2011). 사회참여노인의 활동수준과 삶의 질 - 성별과 연령 차이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42(2): 5-39.
- 채구묵(2007). 신규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9(4): 35-61.

- 최성재(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49: 233-258.
- 최윤정·김이선·선보영·동제연·정해숙·양계민·이은아·황정미(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최혜지·이은정·홍기원·김정환(2012).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 최형성(2007).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아동의 자존감 모형 탐색. 한국아동학회지. 22(3): 1-16.
- 하상복(2012). 황색 피부, 백색 가면. 인문과학연구. 33: 525-556.
- Amit, K.(2010).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immigrants from western countries and from the FSU in Israel. Social Indicators Research, 96: 515-534.
- Benner, A. D., & Kim, S. Y.(2009). Intergenerational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in Chinese American families : Influences of socialization and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4): 862-877.
- Bobo, Lawrence D., and Cybelle Fox.(2003). Race, Racism, and Discrimination : Bridging Problems, Methods, and Theory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6, 319-332.
- Canziani, A., Paszke, A. and Culurciello, E.,(2016). An analysis of deep neural network models for practical applications. *arXiv preprint*, arXiv:1605.07678. <https://arxiv.org/pdf/1605.07678.pdf>
- Chiswick, B. R., and P. W. Miller.(2007). The International Transferability of Immigrants' Human Capital Skills. *IZA Discussion Paper*, No. 2670. Bonn, Germany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IZA), <http://ftp.iza.org/dp2670.pdf>.
- Chrispin, M. C.(1998). *Resilient adaptation of church-affiliated young Haitian immigrants : A search for protective resourc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 Frone, M. R., M. Russell and M. L. Cooper(1992),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 - family conflict: Testing a model of the work - family interfa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1): 65-78.

- Harrell, S. P.(2000). A multidimensional conceptualization of racism related stress: Implications for the well-bing of people of color.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0(1): 42-57.
- Hughes, D., & Johnson, D.(2001). Correlates in children's experience of parents' racial socialization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4), 981-995.
- Kanas, A., and van Tubergen, F.(2009). The Impact of Origin and Host Country Schooling o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Immigrants, *Social Forces*, 88(2): 893-915.
- Kim, J. K.(2014). *Yellow over Black: History of Race in Korea and the New Study of Race and Empire*. *Critical Sociology*, 41(2): 205-217.
- Kim, M.(2013). Citizenship Projects for Marriage Migrants in South Korea: Intersecting Motherhood with Ethnicity and Class.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20(4), 455-481.
- Kim, S.(2012). Racism in the global era : Analysis of Korean media discourse around migrants, 1990-2009, *Discourse & Society*, 23(6), 657-678.
- Krieger, N.(1999). Embodying inequality : a review of concepts, measures, and methods for studying health consequences of discrim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29(2), 295-352.
- Lee, S., and Kim, D. S. (2014). Acculturation and Self-rated Health among Foreign Women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4(2), 453-483.
- Massey, Douglas S. and Ilana Redstone Akresh.(2006). Immigrant Intentions and Mobility in a Global Economy : The Attitudes and Behavior of Recently Arrived U.S. Immigrants. *Social Science Quarterly*, 87(5), 954-971.
- Malhotra, R. S., Misra, J., and Leal, D.F.(2016). Gender and Reproductive Labor Migration in Asia, 1960-2000.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46(2): 114-140.
- Neugarten, B. L., R. J. Havighurst and S. S. Tobin(1961). The



-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 134-143.
- OECD(2012). *Settling in: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2012*, <https://doi.org/10.1787/9789264171534-en>.
- Padilla, A. M., Y. Wagatsuma, and K. Lindholm.(1985). Acculturation and personality as predictors of stress in Japanese and Japanese-American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5: 295-305.
- Paukert, A. L., J. W. Pettit, M. Perez, and R. L. Walker.(2006). Affective and attributional features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ethnic minority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Psychology*, 140(5): 405-419.
- Rawat, W. and Wang, Z.,(2017).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for image classification: A comprehensive review. *Neural computation*, 29(9), 2352-2449.
- Richardson, Alan.(1967). A Theory and a Method for the Psychological Study of Assimil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 3-30.
- Safi, Mirna.(2010). Immigrants Life Satisfaction in Europe: between Assimilation and Discrimina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6(2), 159-176.
- Shields, M. A., and Wheatley-Price, S.(2002). The English Language Fluency and Occupational Success of Ethnic Minority Immigrant Men Living in English Metropolitan Area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1), 137-160.
- Thomas, Melvin E., and Bernadette J. Holmes.(1992). Determinants of Satisfaction for Blacks and Whites. *The Sociological Quarterly*, 33, 459-472.
- Valois, Robert F., Keith J. Zullig, E. Scott Huebner, and J. Wanzer Drane.(2004). Life Satisfaction and Suicide among High School Adoles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 81-105.
- Williams, D. R., & Mohammed, S. A.(2009). Discrimination and racial disparities in health: evidence and needed research.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32(1): 20-47.
- Yamanaka, K. & Piper, N.(2005). Feminized migration in East and

- Southeast Asia: Policies, actions and empowerment, *UNRISD Occasional Paper 11*.
- Zeng, Z., and Xie, Y.(2004). Asian-Americans' Earnings Disadvantage Reexamined : The Role of Place of Educ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5): 1075-1108.
- 뉴스클레임(2020.4.4.). “경기지역 이주민들 “세금 받아먹고 정책에서는 차별”-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차별논란”.
- <http://newsclaim.co.kr/View.aspx?No=796964>(2020.06.18.인출)
- 서울신문(2020.3.19.). “국내 이주민 68% “한국에 인종차별 존재한다””.
-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20010014&wlog\\_tag1=](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20010014&wlog_tag1=) (2020.06.18.인출).
- 통계청(2019a).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19.7.19.입력자료).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60](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60)(2020.4.30.인출).
- 통계청(2019b). 결혼이민자 현황(2019.7.19.입력자료)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19](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19) (2020.06.18.인출).
- 통계청(2018a). 체류외국인 현황 e-나라지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8.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 (2020.4.30.인출).
- 통계청(2018b). 결혼민자 현황 e-나라지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8.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19](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19) (2020.4.30.인출).

## Abstract

# A Study on the effects of social discrimination and individual-level factors on the life satisfaction :Chinese, Korean-Chinese, Vietnamese, Pilipinas

Sun-joo Cho\*·Ju-Hee Ahn\*\*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social discrimination and individual-level factors on the life satisfaction among marriage-immigrants from China, China\_Korea, Vietnam and Philippines, using the '2015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and '2018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This study mainly explores whether experiences on discriminations against marriage-immigrants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satisfaction with their spouse and children as well as overall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show the discrimination against immigrant women's marriage groups was found to be important in that it could promote the stratification of ethnic and ethnic groups in the future. And that experiences on discrimination significantly lower life satisfaction as well as the satisfaction with their spouse among Chinese female marriage-immigrants. But that experiences on discrimination significantly lower life satisfaction as well as the satisfaction with their spouse and children among Korean-Chinese, Vietnamese, Filipinas female marriage-immigrants

The common results for immigrants in all countries are as follows. The satisfaction with their spouse is likely to increase as they get higher the net income of households. And female marriage-immigrants with short duration of stay are found to be highly satisfied with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spouses.

**Keywords :** Asian female married immigrants, life satisfaction in Korea, marriage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children, 2015, 2018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

\* First Author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Second Author : Researcher,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